



군종주보

2017년 9월 17일(제841호) **성 김대건 인드레이 사제와 성 장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순교, 하나님을 위한 용기

임진왜란 시기, 단 열두 척의 배만으로 300여 척의 일본 대군에 맞서 싸웠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해 마지않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커서 모든 조선 수군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 여기 있는가!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과 함께 가장 먼저 적진으로 향했던 이순신 장군의 모범은 그 당시 조선 수군의 가장 큰 적이었던 ‘공포’를 ‘용기’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조선 수군은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공포라는 가장 큰 적에 맞섰던 이순신 장군의 한마디는, 놀랍게도 오늘 기념하는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복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6)

하느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순교 선조들에게 있어서도, 그 순간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었을까 목상해 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

다는 그 공포가 마지막까지 순교성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 목상해 봅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들의 순교는 더욱 위대하고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순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깊은 두려움과 공포를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그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만이, 순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동반하는 피의 순교는 아닐지라도, 순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청됩니다. 불의 앞에서 당당해 져야 하는 순간에, 하느님 뜻과 무관한 내 안의 욕망이 꿈틀대는 순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과 공포와 싸우게 되며, 순교로 초대받게 됩니다.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패배일지 몰라도,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용기이자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진혁(베드로) 신부
토성대(공군 3포비전)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지혜 3,1-9

회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독 시

로마 8,31ㄴ-39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카 9,23-26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진리를 살다

감사기도(III)

● 감사송 : 시작 대화, 감사송, 기록하시도다

감사기도는 먼저 사제와 신자들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등의 세 차례 대화로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미사 중에 다소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들어 높이며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기도를 바치도록 인도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소망을 하느님께 바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께 감사하기를 가르칩니다. 감사는 자신이 선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데 이따금씩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기도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인 감사송에서 우리가 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모든 감사송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 부분과 ‘기록하시도다’에로의 인도 부분은 모든 감사송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매번 다른 중간 부분은 그때그때 미사에서 특별히 감사하는 구원 업적에 대한 찬양들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구원행위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송에서 주요한 주제는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입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를 위시한 성인 감사송에서는 그들의 삶 안에서 일키셨던 하느님의 손길, 그분의 움직이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행 로마 미사경본은 85개의 다양한 감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물준비

● 성령 청원(축성 청원)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려면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축성을 기원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제2양식)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제3양식) 이 기도를 바치면서 사제는 빵과 포도주 잔에 안수하며 십자표를 긋는데, 이것은 성령의 강림과 축성을 기원하는 동작입니다. 하느님은 성령을 통하여 변화의 기적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해된 축성 기원은 ‘인간의 행위나 또는 능력이 성찬의 예식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같은 모든 주술적인 혐의’를 없애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제직무의 변화 권한”이란 말을 크게 제한시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는 능력인 성령을 보내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사제는 직무를 통해서 말하는 감사기도 안에서 신적 권능의 일을 위한 전체 조건만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서방교회 신학은 성변화는 성찬 축성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대변했는데 비해, 동방의 견해는 “...당신 성령을 통하여 이 예물을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축성 기원에 두었습니다. 두 견해가 지난날 오랜 세월을 걸쳐 논쟁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감사기도 신학에 두 견해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서방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순교터에서

그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
앉아

그들이
봤던
하늘을 보고
왔습니다.

상화이야기

세바스찬 성인



세바스찬 성인은 황제의 군인으로서 신자라는 이유로 과면되어 순교하였다. 처음엔 온몸에 화살이 박히는 형을 받았으나, 이레네 성인에 의해 치료되어 살아남았고, 계속 포교활동을 펼치다 후에 곤봉태형으로 순교하였다.

세바스찬 성인은 주로 나무에 몸이 묶인 채로, 온몸에 화살이 박힌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 당시 흑사병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성인으로 간주하였다. 만테냐 자신이 흑사병에서 살아남아, 이 주제로 여러 점을 그렸다는 해석도 있다. 오늘 소개할 그림은 이 중 빈에 있는 그림으로, 그 당시 인간의 몸을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화가가 매우 정확하게 인간의 몸을 해부학적으로 묘사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실제로 성인이 순교 당한 시절은 로마제국의 전성기나, 이 그림에서는 로마 유적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땅에 뒹굴어 있다. 이러한 시간적 불일치성은 로마제국의 패망 이후에도 견고하게 지속되는 그리스도교를 암시한다. 그러나 배경에서 정확하게 그려지고 묘사된 로마 도시의 모습 및 파괴된 로마의 유적마저도 아름답게 그려진 점과 성인의 자세와 로마 조각에서 빈번히 보인 자세라는 것은 화가가 고대 로마와 고전 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왼쪽 최상단의 구름 형상이다. 마치 말을 타고 있는 기수의 형상을 하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인드레이 민테이(1432-1506)
1456-1459년 작
패널 위 유화 68 × 30 cm
비엔나 미술관, 오스트리아 빈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순교자 대축일: 지상대 농희표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9월 17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9월 19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해병대요람(해병 교육훈련단) 성당 사목방문
 때: 9월 23일(토)

◆ 교구장 신임시제 방문

- 만포대(2합대) 성당
 때: 9월 20일(수)
- 중평 103위 성인(37사단), 천성대(17전비단) 성당
 때: 9월 21일(목)

◆ 장군 준·부사관 연수

때·곳: 9월 23일(토)-24일(주일), 용성대 성당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